

2022년 7월 10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사도행전 Acts 12:20-25

20.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Now Herod was angry with the people of Tyre and Sidon, and they came to him with one accord, and having persuaded Blastus, the king's chamberlain, they asked for peace, because their country depended on king's country for good.

21.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On an appointed day Herod put on his royal robes, took his seat upon the throne, and delivered an oration to them.

22.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And the people were shouting, "The voice of god, not of a man!"

23.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Immediately an angel of the Lord struck him down, because he did not give God the glory. And he was eaten by worms and breathed his last.

24.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But the word of God increased and multiplied.

25.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And Barnabas and Saul returned from Jerusalem when they had completed their service, bringing with them John, whose other name was Mark.

헤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과 정 반대였습니다.

King Herod was a man standing against God. He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saints who glorify in all the ways of living.

그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금했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구원하셔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교회 핍박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심판을 행하시고, 그에 따른 징벌을 내리십니다.

God of justice will not leave such a man alone. God judges. God punished accordingly.

오늘 본문의 정황을 살피니,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하여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헤롯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에 지독한 가뭄이 들었거나 해서 식량사정이 대단히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여유 있는 이웃의 "교만"은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품을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궁핍"히 여기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구걸하는 자에게 분노를 품다니요!

According to the Scripture text, Herod was very arrogant against the peoples of

Sidon and Tyre. Because they were eating from the kingdom of Herod. Maybe because of drought, they must have suffered from shortage of food. In such a situation, the arrogance of rich neighbor is not acceptable for common sense. What is required then is compassion. But the heart of Herod was full of anger!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곧 최측근에게 와서 왕과 화목 하는 일에 역할을 부탁했습니다.

The people of Tyre and Sidon persuaded Balastus, the king's chamberlain, for peace with the king.

그만큼 그들은 절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수품을 나누어 주어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래 구걸하는 자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런 거짓된 자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합니다. 그것도 그가 택한 날에! 말하자면 그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위에 자기의 모든 권위를 다 드러낸 것입니다.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달리 보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의 연설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연설을 듣던 무리들의 반응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The voice of a god, and not of a man!

이런 찬사는 일종의 “용비어천가”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오랜 옛날에나 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여기저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헤롯의 태도입니다. 그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한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그것을 그가 가로챈 것은 이제 문제가 인간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손”으로 변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을 치셨습니다. “벌레”가 헤롯을 상하게 했습니다. 강한 자 헤롯이 가장 약한 존재 벌레를 통해 죽었습니다. 인간 권력의 속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악한 왕들이 약한 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성경의 경우를 보면, 여인들이 강한 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자를 사용하여 강한 체 하는 자들을 멸하신 것은 1. 권력의 속성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2.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헤롯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씀에 잇따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But the word of God increased and multiplied.

사도행전 Acts 12:24

헤롯이 왕권을 가지고도 하지 않은 것을 바나바와 사울은 실시했습니다. “부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진심으로 돕고 긍휼히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역”을 위해 “파송”하게 됩니다. 소위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천사를 통하여 벌레로 헤롯을 죽이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양하고 더합니다.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교회는 번성합니다. 교회는 적은 힘을 가지고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고, 핍박 받는 교회는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하는 헤롯을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묵묵히 실천한 것입니다. 교회의 승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신이 아닙니다. 영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헤롯 같은 폭군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군림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권력자에게 아첨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 인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드높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악한 자는 멸하시고, 권세를 다른 이에게 주십니다.

다니엘 때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헤롯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 진리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바나바와 사울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요, 다른 이름은 마가입니다. 소위 “요한 마가”인데, 그는 마가복음의 기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합력”하도록 도와십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흩어지는 대신 모여들었습니다. 모이기를 더욱 힘썼습니다.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우뚝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까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